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777 검은색과 국가

인도서 검은색은 수드라를 상징

●이스라엘  
 포대를 입고 잿더미 속을 걷는다는 말은 슬픔에 잠긴 사람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포대와 비슷하게 생긴 상복을 입은 데서 유래되었다.

●이집트  
 이집트의 국기는 위로부터 빨간색과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 3가지 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으며, 가운데에는 '살라딘의 독수리'라고 부르는 국장이 새겨져 있다. 검은색은 지난날의 외세에 지배당했던 암흑시대와 칼리프 시대의 영광과 지난날의 암흑시대를 상징한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가 1919년 파시스트 운동을 전개할 때, 추종자들에게 검은색 셔츠를 입게 했다. 이때의 검정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위협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1919년 이탈리아에서 검정은 파시스트 운동의 색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파괴를 목표로 삼았으며, 검은색 셔츠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다. 1933년 영국과 네덜란드의 파시스트들도 검

은색 셔츠를 입었다. '검은자'는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파시스트를 가리킨다.

●인도  
 비렌은 그의 저서인 '색채와 인간의 반응'에서 인도는 브라만(Brahmans), 크샤트리아(Ksatriya), 바이샤(Vaisya), 수드라(Sudra)의 독특한 4가지 신분 계급(종족)을 색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사회계급 제도인 카스트는 출생과 동시에 규정되며, 색(色)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피부 빛깔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계급에 따라 하양, 빨강, 노랑, 검정의 색깔로 소속과 계급이 표시된다. 창조주의 입에서 브라만(성직자)이 나왔고, 팔에서는 크샤트리아(왕족, 무사), 넓적다리에서는 바이샤(평민), 발에서는 수드라(하층민)가 나왔다. 이들은 4개의 바르나(Varna)였고, 그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색(色)을 의미하는 말이다.

검은색은 수드라를 상징하고, 노예 계급이며, 남을 위해 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계급은 실용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으나 성전 베다(Veda)를 배울 수는 없다.

인도 중부의 한 지방에서는 쌍둥이 중 한 명을 골라 오른쪽 엉덩이에 검

은색을 칠하고, 왼쪽 엉덩이에 다른 색을 칠한 다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세워 놓으면, 농작물이 비나 우박으로부터 피해 입지 않는다고 믿었다. 인도의 일부 지방에서는 검은색 구름과 색이 같은 검은색 동물을 제물로 바쳐 비를 내리게 했다.

인도의 복장 색채는 무수히 많은 지방의 관습적 지배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주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원색을 즐겨 입어 유럽의 집시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인도의 국민은 색채에 대해 오래도록 연구해 학문이나 지식을 많이 쌓았다.

●일본  
 일본에서는 이를 검게 물들이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으며, 예 도시대에 여자가 결혼했다는 표시로 나타냈지만, 헤이안 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는 어른의 증거로 이를 검게 물들였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4년 사각형 통 모양의 검은색 우체통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서구사 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검은 고양이 는 불길하다는 미신으로 그 뿌리가 깊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사진으로 보는 세상

25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 모인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

AP/뉴시스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곳곳에 등장한 산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 이색 산타들이 등장했다. 암벽등반을 하는 산타에 이어 한 산타는 루돌프 대신 제트스키를 타고 있다. 루돌프 풍선과 함께 서핑을 즐기는 산타나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산타 장식 또한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산타복을 입은 채 경기도 불암산 정상에 도착한 이들은 국립공원 산악안전지원단원들로, 영하 12도의 강추위에도 "새해에는 새 희망이 가득 하시길"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연말 시민들의 안전산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힘 '경찰 차벽' 뚫었다"

"말 그대로 기적이다. 시민들이 아니었으면 8년 전 박근혜 탄핵 촉구 시위 때처럼 농민들의 길이 막았을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 남태령 인근 도로에서 28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과의 대치, 이른바 '남태령 대첩' 끝에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달했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달려와 준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 적극적인 후원이 만들어낸 극적인 장면이었다. 트랙터 시위에서 전봉준 투쟁단 서군대장을 맡은 이강성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시민들이 아니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하철 '계좌이체'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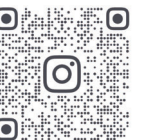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 지하철 탑승 요금 결제'를 금지한다. 공사는 지난 2022년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위해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부정승차 및 업무 가중' 문제가 발생했다.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경우나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는 발매기 등 역사 내 기기 고장이나 정전 등으로 승차권 처리 불가 시 예외적 허용은 유지한다.



중국 유일의 단관극장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관인 광주극장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영화를 상영한다. 대표적으로 '밀레니엄 맘보'는 화양연화 마크 리 평병 감독의 작품으로, 2003년 개봉 후 11년 만에 리마스터링을 거쳐 재개봉한 영화다. 타이베이에서 내은 불빛 아래, 방황하는 청춘 비키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세기말 리브레터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알레고리 잇츠 나미"는 레오스 카락스 감독이 직접 출연하고 오늘 날 영화 예술에 대한 고민을 영상으로 펼쳤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